

---

## 일본 경제 동향 (2014.2월)

---

— < 목 차 > —

<b>I . 일본 경제 지표 .....</b>	<b>1</b>
<b>II .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.....</b>	<b>2</b>
1. 민간 주도의 경기회복 .....	2
2. 계속되는 무역적자 행진 .....	7
3. 엔저 가속과 주가·금리 하락 .....	10
4. 엔저에도 해외직접투자는 가속 .....	12
<b>III . 일본의 주요정책 .....</b>	<b>13</b>
1. TPP의 주요 쟁점과 민·관의 대응 .....	13
2. 소니와 캐논의 사업재편 전략 .....	15
<b>IV . 한일 경제관계 분석 .....</b>	<b>17</b>
1. 대일수출 감소세 지속 .....	17
2. 예의 주시되는 일본의 대한투자 감소 .....	20
3. 일본인 입국자 감소세 계속 .....	22
<b>V . 참고 자료 .....</b>	<b>23</b>
1.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.....	23
2. 일본의 주요 경제일정 .....	24

## I. 일본 경제 지표

< 일본경제 주요지표 >

구 분	2012	2013	2013			2013		2014
			2/4	3/4	4/4	11	12	1
GDP증가율(%)	1.4	1.7	3.8	1.1	1.0(P)	-		-
광공업생산증가율(%)	0.6	-0.8	1.5	1.7	1.9	-0.1	1.1	-
개인소비증가율(%)	2.0	2.0	0.7	0.2	0.5(P)	-		-
소비자물가 전월비	-0.1	0.4	0.7	0.4	0.3	0.0	-0.1	-
상승율(%) 전년동월비	-0.1	0.4	0.0	0.7	1.1	1.2	1.3	-
실업율(%)	4.3	4.0	4.0	4.0	3.9	4.0	3.7	-
수출(조엔)	63.7	69.8	17.7	17.8	18.1	5.9	6.1	5.3
수입(조엔)	70.7	81.3	19.7	20.6	21.8	7.2	7.4	8
무역수지(조엔)	-8.4	-11.5	-2.0	-2.8	-3.7	-1.3	-1.3	-2.8
경상수지(조엔)	4.8	3.3	1.7	1.4	-1.4	0.6	0.6	-
해외투자(조엔)	9.8	13.2	3.3	4.7	3.1	0.5	1.8	-
환율	달러	80.1	97.7	98.8	100.5	100	103.5	103.9
	원화(100엔)	1,413	1,123	1,138	1,139	1,064	1,021	1,022
금리(10년물,%)	0.78	0.72	0.72	0.77	0.64	0.61	0.67	0.66
주가(닛케이)	9,612	13,651	13,629	14,128	15,388	14,932	15,655	15,578

주: 증가율은 전기비, (P)는 1차 속보치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 한국은행

### □ (경기판단) 생산 및 고용 증가로 경기 개선

- '13.12월 경기동향지수(2010년=100)가 생산과 고용 증가에 힘입어 111.7(전월 대비 1p 상승)로 4개월 연속 상승, 경기회복세 유지

### □ (물가) 완만한 상승세

- '13.12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대비로는 0.1% 하락했으나, 전년동월대비로는 1.3% 상승

### □ (무역수지) 19개월 연속 적자 행진

- 수출 증가는 둔화, 수입 증가는 가속되어 2조 8,000억엔의 최대적자 기록

### □ (환율) 엔화 약세 가속

- '14.1월 엔화의 대미달러 가치가 전월대비 0.4% 하락(엔저)
- \* '14.1월 엔화의 대원화 가치는 전월대비 0.1% 상승(원저·엔고)

## Ⅱ.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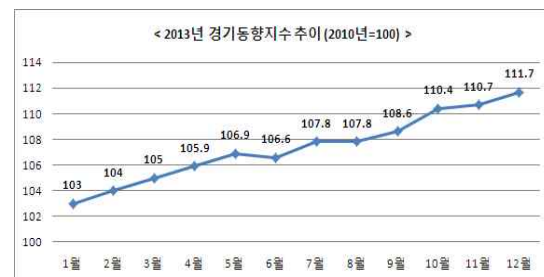
### 1. 민간 주도의 경기회복

#### □ (총 합)

- ‘13년 4분기 GDP성장율은 3분기보다 낮은 1.0%(연율 환산)로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,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견인한 내수주도형 성장이라는 점에서 3분기의 공공투자가 주도했던 성장과는 차별
  - 소비세 증세전 가수요를 감안하면, 연율 1%정도의 성장률은 저성장으로 평가
  - 엔저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수출이 2014년 일본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지적

#### □ (전 망)

- 2014년 1분기까지 경기회복세가 계속된 이후, 4월 소비세 증세 이후에는 일시적인 감속이 예상
  -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과 엔저로 완만히 증가, 소비세 증세이후에는 내수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
  - 소비는 소비세증세 전까지는 증가율이 높아질 것이나, 소비세 증세 후에는 일시적으로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



자료: 내각부

#### □ (시사점)

- ‘13년 4분기 GDP성장율 둔화는 수출 부진이 원인으로 엔저에서도 수출물량증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
  - 이는 환율만으로 수출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, 제품개발과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

- ‘13년 4분기 GDP성장율이 둔화되었지만 소비와 민간설비투자 중심의 민간의 자율적인 경기회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

■ (GDP) ‘13년 3분기보다 성장율은 둔화되었으나, 공공투자 중심에서 개인소비와 민간설

## 비투자에 의한 경기회복

- 일본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2013년 4분기 GDP성장율은 전기비 0.3%, 연율로는 1.0%로 민간경제연구기관의 전망치 2.7%에 크게 미치지 못함
- 경제성장율이 둔화된 원인은 수출 부진이 주 요인
  - 수출 전체는 전기비 0.4% 플러스로 반전되었으나, 증가율은 낮은 편임
  - 수입은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(LNG)의 증가로 전기비 3.5% 증가율을 보여, GDP 성장에 대한 외수(수출-수입)의 기여도는 -0.5포인트로 2분기 연속 GDP성장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
- 한편, GDP성장에 대한 내수의 기여도는 0.8포인트, 소비세 증세전 가수요의 영향으로 내수가 경기를 지탱
  - 개인소비가 0.5% 증가, 주택투자도 4.2%로 전기의 증가율을 상회
  - 설비투자도 1.3%증가하여 3분기 연속 플러스, 자동차 등 수송기계와 전자통신기기 분야의 설비투자가 견조세
- 소비세 증세전 가수요를 고려하면, 연율 1%정도의 성장률은 저성장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, 엔저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수출이 2014년 일본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지적 되고 있음
- 일본의 민간연구기관들은 GDP성장율 전망치를 하향조정,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한 노무라연구소도 2014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.4%에서 1%로 하향조정
  - 주요 12개 민간연구기관의 2014년도 평균성장률 전망치는 0.8%('13년도 2.3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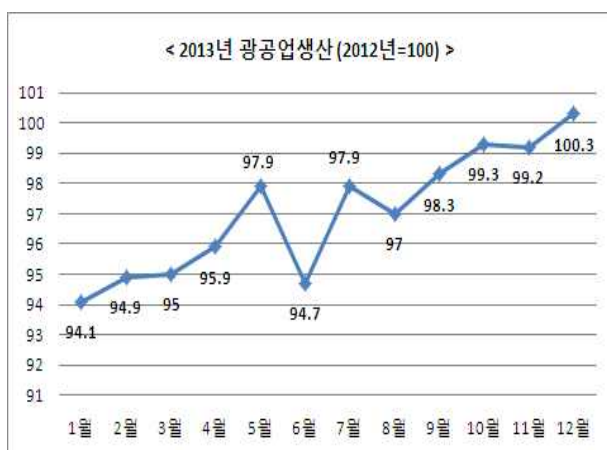
### <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(%) >

구 분	2011	2012	2012		2013			
			7-9월	10-12월	1-3월	4-6월	7-9월	10-12월
전기비	-0.5	1.4	-0.8	0.1	1.1	0.9	0.3	0.3
(전기비연율)			(-3.2)	(0.6)	(4.5)	(3.6)	(1.1)	(1.0)
(전년동기비)			(-0.2)	(-0.3)	(0.1)	(1.2)	(2.4)	(2.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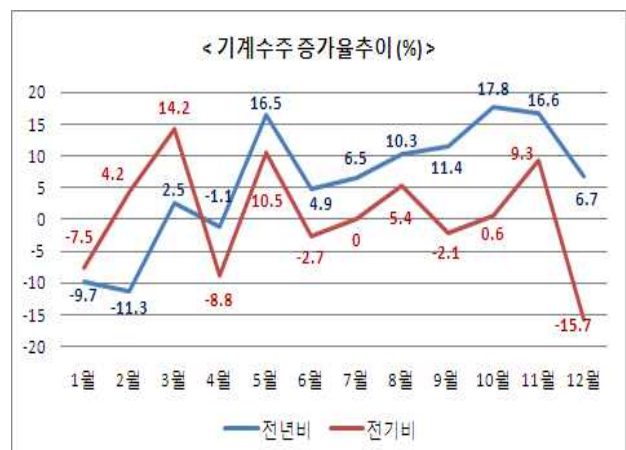
자료: 일본 내각부

□ (산업생산·투자) 엔저 및 가수요의 영향으로 경기 개선

- ‘13년 12월 경기동향지수(2010년=100)는 111.7로 4개월 연속 상승
  - 생산과 고용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것이 경기동향지수 상승에 기여
  - 일본 내각부는 전월에 이어 경기의 기조를 ‘개선’되고 있다고 판단
- ‘13년 12월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비 1.1%로 2개월만에 상승
  - 미국과 아시아지역의 수출호조로 범용·생산용·업무용 기계공업과 건설 관련 교량·철골을 포함한 금속제품 등이 생산증가를 주도
  - 해외경제 회복과 엔저를 배경으로 한 수출증가, 소비세 증세전 가수요에 대한 대응 등으로 생산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
- 다만, ‘13년 11월에 호조를 보였던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(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의 수주액)이 12월에는 15.7%의 큰 폭으로 감소
  - 아마리 대신은 4월 소비세 증세의 반동으로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마인드가 냉각될 가능성을 지적
- 기업의 설비투자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수익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개선
  - 비제조업은 영업실적이 개선, 제조업은 철강과 전기기계 등을 중심으로 2014년 1분기까지 증가세를 이어간 후, 4월 소비세 증세후에는 내수의 감소로 악화될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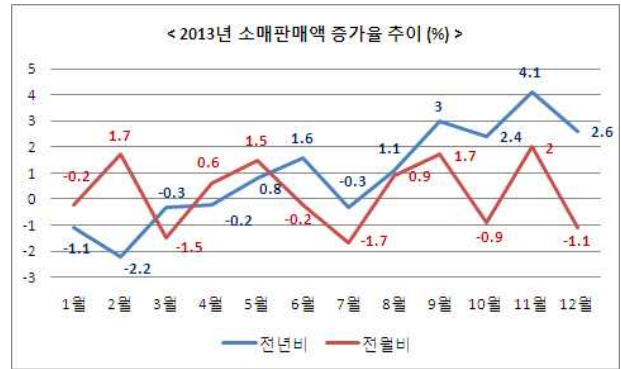
자료: 경제산업성



자료: 내각부

□ (소 비) 일시적 감소에도 견조세 확대 전망

- 총무성이 발표한 가계조사에 의하면, 2013년 12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비 0.7% 감소
- 기복이 큰 주거 및 자동차 등을 제외한 실질소비지출은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어 12월의 개인소비는 건조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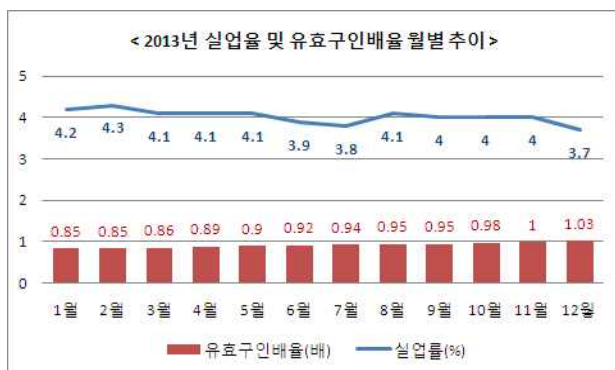
자료: 경제산업성

- 경제산업성이 발표하는 소매판매액도 전월비 -1.1%로 2개월만에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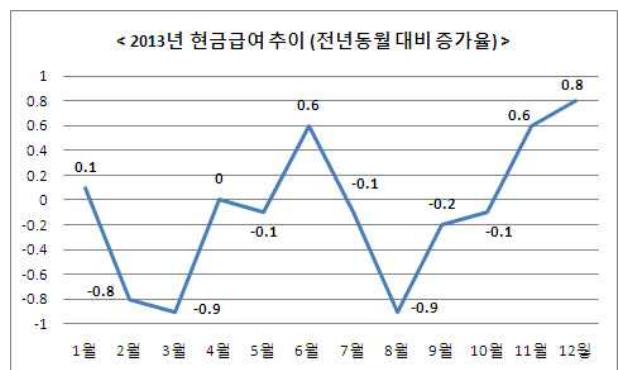
- 12월의 소비에 대한 일시적인 감속이라는 평가와 함께, 2014년 4월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, 1분기에는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가수요의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

## □ (고 용)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도 견조세 유지

- '13년 12월 실업율은 전월대비 0.3포인트 감소한 3.7%로 3개월만에 개선
- '13년 12월 유효구인배율은 1.03으로 2개월 연속 상승, 구인수요의 증가를 반영
- 소비의 중요한 영향변수인 현금급여의 '13년 12월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0.8%로 2개월 연속 전년수준을 상회



자료: 후생노동성



자료: 후생노동성

## □ (물 가) '13년 12월 소비자물가는 완만하게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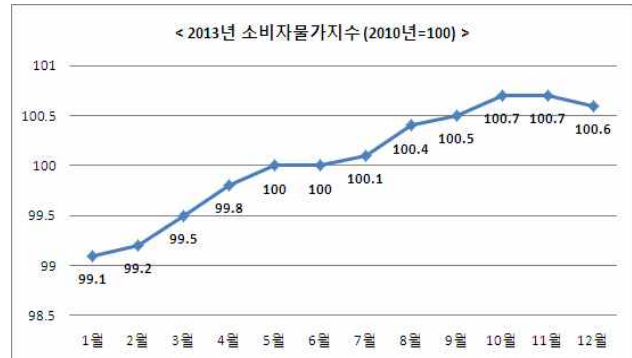
○ '13년 12월 소비자물가(코어CPI:생선식품 제외)는 전월대비로는 0.1%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.3% 상승

-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상승으로 식료품(생선식품 제외)등이 물가상승에 기여

○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1%대(전년동기 대비)전반에서 추이할 것이나, 상승폭은 완만하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

- 4월까지의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플러스 폭이 확대되다가, 4월 소비세 증세 후에는 내수의 감소로 상승폭이 축소될 전망

- 원유가격의 상승 중단 등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률은 둔화될 전망



자료: 총무성

## 2. 계속되는 무역적자 행진

□ (총 합) '14년 1월 무역적자는 2조 7,900억엔으로 과거 최대

- '14년 1월 일본의 무역적자는 19개월 연속, 1979년 이후 최대 규모
- 무역적자 확대 원인은 수출증가세의 둔화와 연료수입 증가에 따른 높은 수입증가율
  -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.5% 증가한 5조 2,500억엔
  -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5% 증가한 8조 400억엔
- '14년 1월 대미 무역수지는 자동차수출 호조로 3,671억엔의 흑자를 시현한 반면, 대아시아 무역수지는 -9,664억엔으로 과거 최대적자
  - 對중국 무역수지는 1조 447억엔 적자로 무역상대국 중 최대 적자

< 2014년 1월 일본의 수출입(조엔, %) >

	2013년		13.12월			14.1월		
	금액	증감	금액	증감		금액	증감	
				전년동기비	전기비		전년동기비	전기비
수 출	69.8	9.5	6.1	15.3	3.5	5.2	9.5	-14.0
수 입	81.3	15	7.4	24.7	3.0	8.0	25.0	8.5
무역수지	-11.5	4.5	-1.3	0.7	0.007	-2.8	1.2	1.5

자료 : 일본 재무성

□ (수 출) 엔저 효과의 부진,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증가세 둔화

- '14년 1월 수출은 5조 2,500억엔으로 전년동기비 9.5% 증가했으나, 전월의 수출증가율 15.3%에 비하여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, 전기비로는 14% 감소
  - 수출증가율은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으나, 수출물량은 0.2%감소하여 4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



- 수출증가세의 둔화 배경은 엔저행진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데도 J커브효과에 의한 수출물량증대 효과가 부진한데다, 일본기업들의 해외생산 확대가 수출을 대체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
- 특히,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분야의 경쟁력약화가 수출물량 감소 요인으로 지적
-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건설광산용기계(37.9%), 섬유기기(30.5%), 베어링(30.5%) 등
- 5대 수출품목의 수출증가율은 유기화합물(25.1%), 철강(14.4%), 자동차(13.9%), 반도체 등 전자부품(8.1%), 자동차부품(7.7%)순
- 주요 수출대상 지역·국가는 대미수출(21.9%), 대EU(20.2%)수출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, 이어 중국(13.1%), 한국(4.9%), 아세안(4%), 대만(0.4%)순

< 2014.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(단위: 억엔, %) >

순위	품목	2013년		2013.12월			2014.1월		
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		전년동기비	전기비		전년동기비	전기비
1	자동차	104,150	12.9	9,074	18.3	-4.7	7,791	13.9	-14.1
2	철강	37,933	8.5	3,371	19.4	11.7	3,056	14.4	-9.3
3	반도체 등 전자부품	35,526	6.4	2,988	6.1	3.2	2,571	8.1	-14.0
4	자동차부품	34,762	8.5	3,086	17.3	6.7	2,530	7.7	-18.0
5	유기화합물	25,236	38.8	2,204	30.1	10.0	2,473	25.1	12.2

자료: 일본 재무성

< 2014.1월 일본의 지역별 수출 (단위: 억엔, %) >

순위	국가	2013년		2013.12월			2014.1월		
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		전년동기비	전기비		전년동기비	전기비
1	미국	129,310	15.6	11,301	13	-0.1	10,236	21.9	-9.4
2	중국	126,287	9.7	12,165	34.4	6.5	8,626	13.1	-29.1
3	ASEAN	108,297	4.9	9,047	5.2	-0.7	7,884	4.0	-12.9
4	EU	70,007	7.7	6,723	23	12.2	6,111	20.2	-9.1
5	한국	55,163	12.2	4,592	5.6	5.9	4,201	4.9	-8.5
6	대만	40,611	10.6	3,745	14.4	10.2	3,076	0.4	-17.9

자료: 일본 재무성

□ (수 입) 연료수입 및 가수요 등으로 대폭 증가

- ‘14년 1월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5% 증가한 8조 400억엔으로 15개월 연속 증가, 전기비로는 8.5% 증가
  - 물량도 8%증가, 4개월 연속 증가
- 전년동기대비 수입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항공기류(78.4%), 전자부품(57.3%), 자동차부품(52.5%), 철강(50.1%) 등
  - 5대 수입품목의 수출증가율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(57.3%), 원유(28.1%), 의류 및 동 부속품(26.4%), 액화천연가스(21.4%), 석유제품(10.8%)순
  - ‘14년 1월의 수입증가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연료수입 증가외에도, 소비세 증세를 앞둔 가수요의 영향도 큼
- 주요 수입대상 지역·국가별로는 중국(34.4%), 미국(25.9%), ASEAN(22.9%), 호주(21.9%), EU(20.2%), 한국(7.7%)순

< 2014.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(단위: 억엔, %) >

순위	품목	2013년		2013.12월			2014.1월		
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		전년동기비	전기비		전년동기비	전기비
1	원유	142,408	16.3	14,187	23.1	14.2	14,090	28.1	-0.7
2	액화천연가스	70,568	17.5	6,895	33.1	19.1	7,365	21.4	6.8
3	의류 및 동부속품	32,457	21.1	2,476	15.1	-5.8	3,092	26.4	24.9
4	석유제품	27,124	10.2	2,710	6.5	4.7	2,841	10.8	4.8
5	반도체 등 전자부품	24,452	37.4	2,151	39.2	-1.1	2,596	57.3	20.7

자료: 일본 재무성

< 2013년 일본의 지역·국가별 수입(단위: 억엔, %) >

순위	국가	2013년		2013.12월			2014.1월		
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		전년동기비	전기비		전년동기비	전기비
1	중국	176,502	17.4	16,001	29.2	-4.9	19,074	34.4	19.2
2	ASEAN	114,864	11.5	10,279	17.3	4.0	10,899	22.9	6.0
3	EU	76,494	15.2	6,970	33.2	4.7	6,997	20.2	0.4
4	미국	68,113	122	5,385	12.1	-16.9	6,564	25.9	21.9
5	호주	49,769	10.5	4,504	26.6	16.3	4,766	21.9	5.8
8	한국	34,966	8.1	3,213	13.4	4.5	3,357	7.7	4.5

자료: 일본 재무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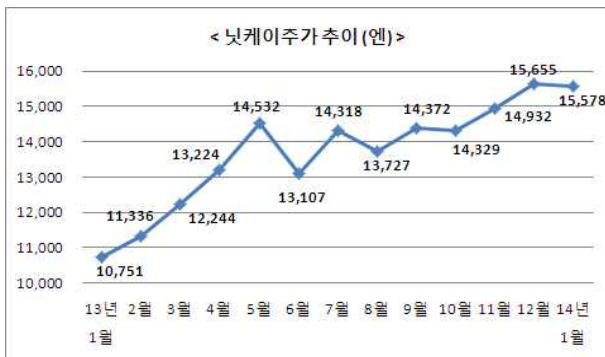
### 3. 엔저 가속과 주가·금리 하락

#### □ (주 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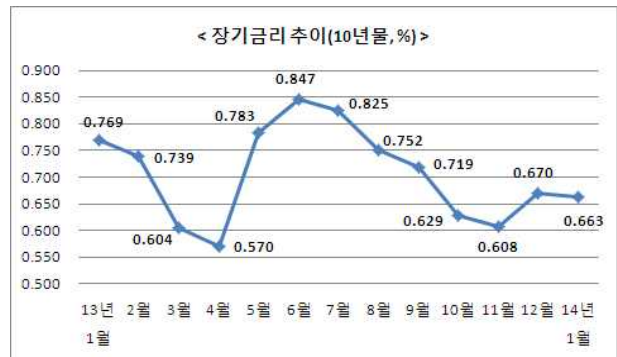
- 주가는 미국의 주가하락과 엔고 반전과 맞물려 하락
  - '14년 1월 평균 주가는 15,578엔으로 전월에 비하여 0.5% 하락

#### □ (금 리)

- '14년 1월 장·단기 금리 모두 하락
  - 장기금리는 10년물 국채의 유통이회율이 미국의 장기금리 하락 및 일본의 주가하락 등을 배경으로 0.67%에서 0.663%로 소폭 하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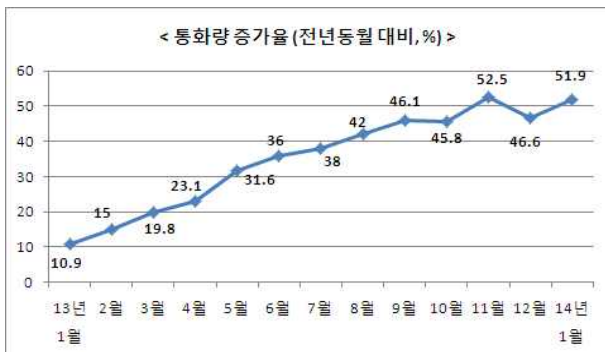
자료: 일본경제신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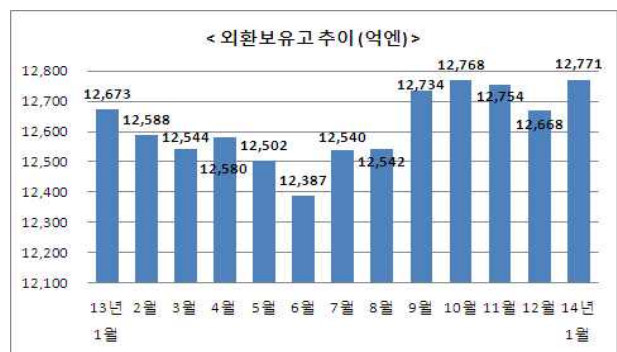
자료: 일본상호증권

#### □ (통화량)

- 통화량(머니리베이스(평잔))은 일본은행에 의한 자산매입이 진전되는 가운데 크게 증가, 전년대비 51.9%의 증가율을 기록



자료: 일본은행



자료: 재무성

## □ (환 율)

○ 달러화에 대해서는 엔화약세 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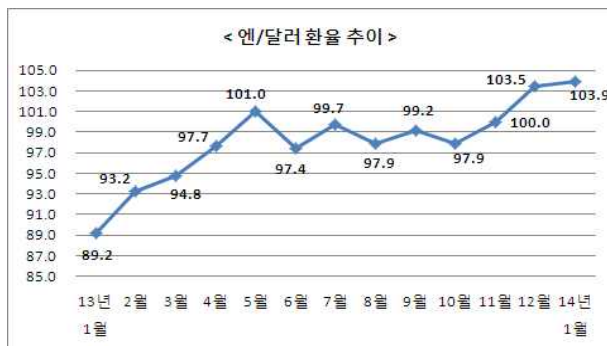
- 엔화의 대미달러 가치의 1월 평균치는 전월의 103.5엔보다 약간 하락한 103.9엔

○ 원화에 대해서는 강세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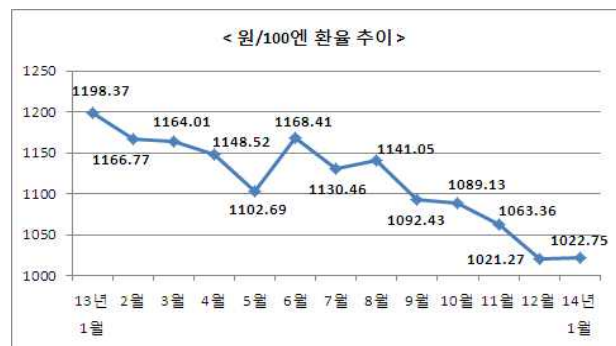
- 엔화의 대원화 가치의 1월 평균치는 전월의 1,022엔보다 약간 상승한 1,023엔

○ 중기적으로는 ① 미일간 금융정책의 차이(미 금융정책의 정상화,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), ②일본의 무역적자구조 정착 등으로 엔저는 지속될 전망

- 단기적으로는 ①계절적인 요인 등에 의한 미국 경기지표의 하강 리스크 잔존, ②신흥국시장의 혼란 재발 리스크, ③소비세 증세로 인한 경기악화 등을 고려하면, 엔 고압력이 강해질 전망



자료: 일본은행



자료: 한국은행

## 4. 엔저에도 해외직접투자는 가속

### □ (동 향) 엔저에도 해외직접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

- 2013년 7월을 피크로 매월 감소세를 보였던 해외직접투자가 12월에는 전년동기 대비 46.5%, 전월대비 278.7% 모두 큰 폭으로 증가

<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(국제수지기준, 억엔, %) >

	2012	2013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금 액	97,784	131,946	8,233	4,045	9,334	15,018	9,011	8,592	37,297	5,317	4,463	8,649	4,631	17,356
전년비	7.1	34.9	22.8	-53.2	230.2	63.8	-9.5	-18.9	425.1	-29.0	-41.6	-17.8	-10.3	46.5
전기비	7.1	34.9	-30.3	-50.9	130.8	60.9	-40.0	-4.6	334.1	-85.8	-16.1	93.8	-46.5	278.7

자료: 일본 재무성

- 2013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엔저가 가속되는 상황에서도 전년비 34.9% 증가

< 일본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(국제수지 기준) >

	금액(억엔)		증감율(전년동기비,%)
	2012년	2013년	
대 세계	97,784	131,946	34.9
아시아	30,987	39,294	26.8
중국	10,760	8,855	-17.8
한국	3,197	3,209	0.4
북 미	28,628	45,698	60.6
미국	25,600	42,933	67.7
중남미	8,342	9,902	18.7
유럽	24,747	31,567	27.6
대양주	8,838	5,895	-33.4
중동	357	191	-46.5

자료: 일본 재무성

- 지역별로는, 북미지역이 60.6%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, 유럽(27.6%), 아시아(26.8%), 중남미(18.7%)순으로 증가한 반면, 대양주(-33.4%)와 중동지역(-46.5%)의 직접투자는 감소
-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67.7%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,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마이너스 17.8%로 감소

### □ (특 징)

- 엔저에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환율과 해외직접투자간 상관관계, 즉 엔고는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반면, 엔저는 해외직접투자를 수출로 대체시키려는 관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

### Ⅲ. 일본의 주요 정책

#### 1. TPP의 주요쟁점과 민·관의 대응

##### ■ [배경]

- 요네쿠라 경단련 회장 등 일본 경제계 대표들은 민감품목 분야에서 TPP 교섭참가국간 대립으로 인해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TPP 조기타결을 건의

##### ■ [주요 내용]

##### ① 일본 경제3단체에서 TPP 조기타결을 건의

- 일본정부에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한 시장접근 분야에서 다른 교섭참가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자유화수준을 높이는 한편, 농산품 등을 염두에 두고 지킬 수 있는 분야를 선별토록 요구
- 교섭을 진전시키기 위해, 국내 신중파들이 난색을 보이는 「단계적인 관세인하」 등도 교섭카드로 활용하도록 주장, 조기타결을 위해 미·일 2국간 합의 필요성을 강조

##### ② 일본정부의 대응

##### ○ 미·일간 TPP 교섭의 쟁점

- 미국과 일본은 상호 관세철폐의 예외분야를 어디까지 압축할 것인가를 놓고 협의중

##### ○ 농축산물에 대한 일본의 관세철폐 문제

- 일본은 5개 농축산물 분야의 586개 세부 품목중 수입실적이 없는 품목과 가공품 등 부차적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중심으로 철폐, 95%정도까지 자유화율을 높일 방침이나, 이에 대해 미국은 전폐를 요구

##### ○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철폐 문제

- 미국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(현행 2.5%)를 유지, 일본은 관세철폐유예기간을 명시토록 요구

○ 일본측의 대안

- 미국측의 대응여하에 따라서는 일본이 95%이상으로 자유화율을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입장
- 다만, 이같은 대안은 일본정부가 쌀 등 중요 5개 항목을 지킨다는 국회결의와의 정합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대처 방법이 주목

○ 싱가포르 TPP각료회의에서도 미·일간 타협 실패

- '14.2월 22일~25일 개최된 싱가포르 TPP각료회의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나 신흥국의 국유기업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진전이 있었으나, 관세분야에서 미·일간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음

■ [시사점]

○ 미국의 입장과 약점

- '14.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은 제약, 농업, 콘텐츠 개발 등 국내 주요 단체가 TPP교섭을 주시하고 있어, 일본과의 관세교섭만이 아니고 여타국과의 교섭에서도 큰 양보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움
-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약점은 일본이 강한 자동차 분야를 대상으로 미국정부가 미국 일본차에 대한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가능한 한 연장하려 하고 있는 점임

○ 일본의 입장과 약점

- 미 의회가 무역협정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에 일임하는 무역촉진권한(TPA)법안의 성립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, 미국 이외의 참가국들도 최종적인 양보안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
- 미국에 대한 일본의 약점은 일본정부가 쌀 등 중요 5개 항목을 지키겠다고 국회에서 결의했으나, 미국이 일본에 관세를 전부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임
- 일본정부는 일본의 농산품과 미국의 자동차에 대하여, 관세철폐를 예외로 하는 복안도 준비, 미국으로부터 이해를 구하게 되면 일부 농산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양보안도 고려

○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4월 방일 때까지 관세철폐분야를 대상으로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대한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며, 일본은 대통령 방일 3일전까지 시나리오를 마무리할 예정인 바, 올 봄이 최대고비가 될 전망

## 2. 소니와 캐논의 사업재편 전략

- 전기기기와 카메라 등의 분야에서 일본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인 소니가 2월 6일 구조조정 등 일대 개혁을 발표하는가 하면, 캐논은 2월 14일 미국 기업의 인수를 발표하는 등 최근 일본기업들의 사업재편전략이 이어지고 있음

### 1) 소 니

#### ■ (배 경)

- 텔레비전, 컴퓨터, 카메라 등 주력 디지털가전 부문의 부진
- 해외기업과의 경쟁 격화, 급속한 기술혁신 속도 등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4년 연속 적자

#### ■ (주요 내용)

- 구조조정
  - 컴퓨터 사업을 투자펀드사인 산업파트너즈에게 매각
  - 텔레비전 사업의 분사화를 통한 독립성 강화(2014년 7월을 목표)
  - 5000명 규모의 구조조정
- 성장전략
  - 스마트폰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2년내 판매대수를 2배로 늘리고, 세계시장점유율 40%인 터치형 게임기는 월정액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
  - 세계 상위인 전자부품, 화상센서도 르네사스엘렉트로닉스로부터 공장을 매수, 확대할 예정



## 2) 캐논

### ■ (배경)

- 1990년대 이후 반도체 제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노광장치 분야의 약 30%의 세계시장점유율이 2000년대에 5%로 전후로 저하
- 반도체의 개발비부담 증가, 삼성전자 등 상위기업으로의 과점화 진행, 제조장치분야에서의 업계 재편 시작과 함께, 노광장치 분야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동경엘렉트노닉스와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가 경영통합
- 이같은 상황에서, 캐논으로서는 M&A를 통해 기술면에서 우위를 확립하여 생존전략을 모색

### ■ (주요 내용)

- 최첨단 반도체 제조기술을 보유한 미국기업을 매수하여, 제조공정 중 가장 중요한 전자회로의 성형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장치를 개발
- 미국 모레쿨러를 100억엔에 매수, 모레쿨러의 인원 70명도 인수할 것으로 예상
- 매수 이후, 자사의 렌즈기술과 모레쿨러의 노광기술을 결합하여 반도체칩을 양산할 수 있는 신형 노광장치를 상품화하여 2015년에 발매, 연간 200대 이상 판매, 2-3년내 15%의 시장점유율을 목표

### ■ (시사점)

- 소니의 사업매각, 분사화, 구조조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, 캐논의 매수를 통한 취약부분 보완은 최근 일본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사업재편전략의 일환으로, 앞으로 동 업계는 물론 여타업계의 사업재편에 마중물로 작용

## IV. 한일 경제관계 분석

### 1. 대일수출 감소세 지속

#### □ (총 합)

- ‘14년 1월 대일무역적자는 전월대비 10억엔 감소, 전년동월대비 3억엔 감소한 12억달러
- ‘14년 1월 대일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9.7% 감소, 전월대비로는 5.7% 감소한 28억 달러
- ‘14년 1월 대일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20%, 전월대비로는 16.8% 감소한 40억 달러

<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(억달러,%) >

	2013년		13.12월			14.1월		
	금액	증감	금액	증감		금액	증감	
				전년동기비	전기비		전년동기비	전기비
대일수출	347	-10.6	27	-12.6	-20.1	28	-19.7	-5.7
대일수입	600	-6.7	48	8.6	3.2	40	-20.0	-16.8
무역수지	-254	-2	-22	0	9	-12	-3	-10

자료: 한국무역통계

#### □ (대일 수출)

- ‘14년 1월 대일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2012년 4월(-23.0%)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2013년 2월 이후 12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
- ‘14년 1월 대일수출의 감소율 19.7%(전년 동월대비)는 총수출의 감소율 0.2%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엔저하에서 대일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

	대일 수출증가율(%)		총수출증가율(%)		일본의 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
2014년 1월	-19.7	-5.7	-0.2	-5.0	25.0	8.5

- '14. 1월 대일수출 10대 품목을 대상으로 대일수출 변화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로 보면, 철강제품과 농산물,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등 3개 품목만이 증가했을 뿐, 나머지 7개 품목의 대일수출은 감소
- 품목별로는 광물성연료(-44.8%)의 수출감소폭이 가장 크고, 이어 석유화학제품(-28.4%), 산업용전자제품(-23.9%)이 전체 대일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20%이상의 감소율을 보임

< 대일 수출 10대 품목(백만달러, %) >

순 위	품목명	2013년		2013.12월			2014.1월		
		금액	증감율	금액	증감율		금액	증감율	
					전년동기비	전기비		전년동기비	전기비
	총계	34,694	-10.6	2,664	-12.6	-21.2	2,824	-19.7	-5.7
1	광물성연료	8,519	-1.6	544	-12.6	-47.1	719	-44.8	32.2
2	철강제품	3,689	-20.1	363	16.1	-3.2	360	18.0	2.0
3	산업용전자제품	3,261	-25.3	246	-22.1	-20.1	219	-23.9	-11.0
4	전자부품	2,826	-12.3	206	-18.4	-14.9	192	-17.4	-6.8
5	정밀화학제품	1,474	-5.6	131	6.9	0.0	120	-1.0	-8.4
6	석유화학제품	1,788	-6.3	121	-10.4	-7.6	113	-28.4	-6.6
7	수송기계	1,161	-19.4	101	30.0	1.0	106	-10.3	5.0
8	농산물	1,072	-10.3	104	9.3	3.0	96	11.0	-7.7
9	기계요소공구·금형	975	-8.7	81	3.7	-3.6	91	2.7	12.3
10	금속광물	1,300	-13.7	78	-34.6	-31.6	82	-2.7	5.1

자료: 한국무역통계

## □ (대일 수입)

- '14년 1월 대일수입의 감소율도 -20%로 총수입의 감소율 -1.0%를 크게 상회
- 엔저·원고하에서도 대일수입의 감소폭이 총수입에 비해 큰 것은 국내 경기침체 외에 국산대체나 수입선다변화가 진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

	대일 수입증가율(%)		총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
2014년 1월	-20.0	-16.8	-1.0	1.1

- '14.1월 대일수입 10대 품목을 대상으로 대일수입 변화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로 보면, 모든 품목에서 대일수입이 감소
  - 품목별로는 기초산업기계(-57.7%)의 수입감소폭이 가장 크고, 이어 플라스틱제품(-23.8%)과 수송기계(-22.1%)가 전체 대일수입증가율을 상회하는 20%이상의 감소율을 보임

### < 대일 수입 10대 품목 (백만달러, %) >

순위	품목명	2013년		2013.12월			2014.1월		
		금액	증감율	금액	증감율		금액	증감율	
					전년동기비	전기비		전년동기비	전기비
	총계	60,016	-6.7	4,836	-7.8	3.9	4,025	-20.0	-16.8
1	철강제품	9,047	-13.7	681	-10.5	-7.0	631	-13.5	-7.3
2	석유화학제품	6,722	20.4	555	1.8	12.8	537	-7.2	-3.2
3	전자부품	7,346	5.3	655	4.7	-0.2	501	-14.2	-23.5
4	정밀화학제품	4,491	-9.7	396	-11.5	9.7	323	-7.1	-18.4
5	기초산업기계	4,820	8.1	351	-17.0	-8.8	225	-57.7	-35.9
6	플라스틱제품	3,264	-17.0	242	-26.8	1.3	223	-23.8	-7.9
7	산업용전자제품	2,813	-30.1	256	13.9	11.3	198	-8.7	-22.7
8	광물성연료	1,238	-26.8	131	6.9	197.8	167	-1.7	-3.5
9	정밀기계	2,837	-30.1	195	-20.0	1.0	163	-11.6	-16.4
10	수송기계	2,375	-10.2	204	-11.5	-0.5	159	-22.7	-22.1

자료: 한국무역통계

## 2. 예의주시되는 일본의 대한투자 감소

□ (동향) 2013년 투자 일순효과 등으로 크게 감소

○ 2013년 4분기 실적

- 2013년 4분기 일본인 직접투자는 건수, 금액 모두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감소
- 투자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21.1% 감소, 투자금액은 41.2% 감소했으나, 전기 대비로는 2분기에 비하여 건수, 금액 모두 증가

○ 2013년 연간 실적

- 투자건수, 투자금액 모두 전년에 비하여 크게 감소
- 투자건수는 전년대비 17.7% 감소, 투자금액은 전년대비 40.8% 감소

○ 2013년에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가 급감한 배경으로는 전년도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일본기업의 초대형 투자가 지연을 들 수 있으며, 이외에 엔저도 일본의 대한 투자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

○ 2013년 일본인투자의 감소폭은 전체 외국인투자의 감소폭 10.7%를 크게 상회, 일본인투자의 감소가 전체 외국인투자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셈임

○ 2013년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가 급감한 배경으로는 전년도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를 들 수 있으며, 이외에 엔저도 일본의 대한 투자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

### <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(신고기준, 단위: 건, 백만달러, %) >

	2011년		2012년		2013년		2013.4분기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일본인투자	502 (18.7)	2,289 (9.9)	564 (12.4)	4,542 (98.4)	447 (-17.7)	2,690 (-40.8)	117 (-21.1)	727 (-41.2)
전체 외국인투자	2,709 (-12.9)	13,673 (4.6)	2,865 (5.8)	16,286 (19.1)	2,607 (-9.1)	14,548 (-10.7)	674 (-11.7)	3,802 (-25.2)

주: ( )내는 전년동기비 증가율, 자료: 산업부, 외국인직접투자 통계

## □ (최근 산업협력 사례)

- JFE, 현대제철의 주식 2% 취득(2014년 1월 23일, 닛케이)
- 닛산차체, 엔저·원고로 한국산부품 비율을 낮추는 방안 검토(2014년 1월 23일, 닛케이)
- 요코하마고무, 금호타이어와와 기술제휴 계약(2014년 2월 14일)
  - 자본제휴도 염두에 두고 타이어의 환경대응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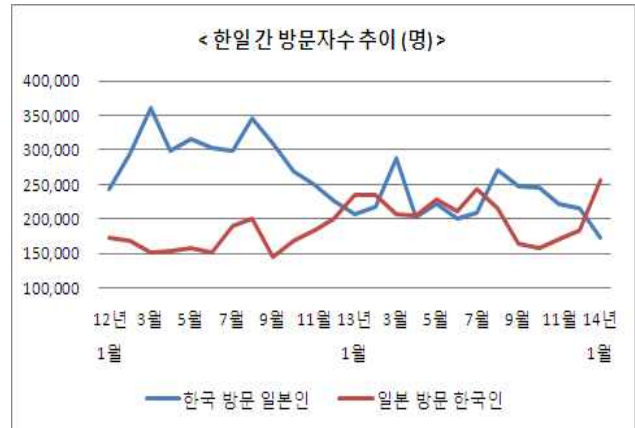
## □ (시사점)

- 2013년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급감한 것은 2012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가 호조를 보인데 따른 기저효과에 의한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이며,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으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그러나 엔저가 가속되고 있는데다, 일제하 한국인징용자에 대한 보상판결 등 한일 정치관계의 악화 등이 한일경제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점에 대한 다각적이 대응이 요구

### 3. 일본인 입국자 감소세 계속

□ (일본인 방한) 한일관계 악화, 원저·엔고로 일본인의 한국방문자 수는 감소 추세

- ‘14년 1월 일본인 입국자는 172,07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.7% 감소
  - 일본인 입국자수는 한일관계의 악화, 엔저·원고의 영향으로 2012년 가을 이후 계속 감소추세
  - 일본인 관광객의 감소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메꾸어지고 있는 실정



출처 : 한국관광공사, 일본정부관광국(JNTO)

□ (한국인 방일)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는 증가

- ‘14년 1월 일본 방문 한국인 수는 255,5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9% 증가

## V. 참고 자료

### 1.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(2014.1월~2월)

#### □ 국내기관

- 『일본 서비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성공사례 3선』 한국무역협회, 2월12일  
<http://iit.kita.net/>
- 『주일한국기업 엔저 먹구름에 공격적 대응할 것』 한국무역협회, 2014년 2월10일  
<http://www.kita.net/info/press/index.jsp?sCmd=VIEW&nPostIndex=209196&nPage=1>
- 『최근 일본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』 한국은행, 2014년 2월7일  
<http://www.bok.or.kr/eng/press/press.do>

○ 『엔저에 따른 주력품목의 일본시장 점유율 중국 ASEAN에 내줘』 한국무역협회, 1월27일  
<http://iit.kita.net/>

○ 『일본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과정과 해외진출 동향 및 시사점』 산업연구원, 2014년 12월30일  
[http://www.kiet.re.kr/kiet\\_web/main.jsp?sub\\_num=8&ord=0&pageNo=2&state=view&idx=45720](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main.jsp?sub_num=8&ord=0&pageNo=2&state=view&idx=45720)

○ 『한·일 산업협력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』 2014년 12월27일  
[http://www.kiet.re.kr/kiet\\_web/main.jsp?sub\\_num=8&ord=0&pageNo=5&state=view&idx=45732](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main.jsp?sub_num=8&ord=0&pageNo=5&state=view&idx=45732)  
[http://www.kiet.re.kr/kiet\\_web/main.jsp?sub\\_num=8&ord=0&pageNo=5&state=view&idx=45732](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main.jsp?sub_num=8&ord=0&pageNo=5&state=view&idx=45732)

#### □ 일본기관

○ 『교섭으로서의 TPP(1),(2)』 아시아태평양연구소, 2014년 2월18일  
<http://www.apir.or.jp/ja/research/scholar-watch/3108/>

○ 『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·생산성향상에 관하여』 경제산업성, 2014년 2월8일  
[http://www.mizuhobank.co.jp/corporate/bizinfo/industry/pdf/msif\\_094.pdf](http://www.mizuhobank.co.jp/corporate/bizinfo/industry/pdf/msif_094.pdf)

○ 『아베정권의 성장전략의 경제적효과 시산』 미즈호은행, 2014년 2월6일  
[http://www.mizuhobank.co.jp/corporate/bizinfo/industry/pdf/msif\\_094.pdf](http://www.mizuhobank.co.jp/corporate/bizinfo/industry/pdf/msif_094.pdf)

○ 『한일관계의 동요와 우려되는 경제관계의 영향』 일본종합연구소, 2014년 2월6일  
<http://www.jri.co.jp/MediaLibrary/file/report/rim/pdf/7213.pdf>

○ 『2014년도 일본산업계 전망』 미즈비시동경UFJ은행, 2014년 2월5일  
<http://www.bk.mufg.jp/report/indcom2006/20140205.pdf>

○ 『일본·유럽·미국·아시아의 기계산업 경쟁력 현황』 일본기계수출조합, 2014년 2월5일  
[http://www.jmcti.org/info/140106\\_press.pdf](http://www.jmcti.org/info/140106_press.pdf)

○ 『일본기업의 제품전환과 그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: 기업다이너미즘과 거시경제』 재무종합정책연구소, 2014년 2월4일  
[http://www.mof.go.jp/pri/publication/financial\\_review/fr\\_list6/r112/r112\\_04.pdf](http://www.mof.go.jp/pri/publication/financial_review/fr_list6/r112/r112_04.pdf)

[http://www.mof.go.jp/pri/publication/financial\\_review/fr\\_list6/r112/r112\\_04.pdf](http://www.mof.go.jp/pri/publication/financial_review/fr_list6/r112/r112_04.pdf)

ac

tio

n?

bo

ar

dB



## 2. 일본의 주요 경제 일정 (2월)

일자	주요 행사 내용
1	•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가 화력발전시스템 사업을 통합
3	• 1월 신차판매대수 발표(자판련)
7	• 아베 총리 러시아 방문(9일까지)
	• 한일산업통상포럼(4차회의, 팔래스호텔)
	• 12월 경기동향지수 속보치(내각부)
9	• 민주당 전당대회(후쿠시마) 개최
	• 도쿄도지사 선거
10	• 미에현 자동차부품 기업인 11명 방한(10~13일까지)
11	• 12월 기계수주(내각부)
17	• 내각부 GDP 속보치 발표 (13년 4분기)
	• TPP 수석교섭관 회의(싱가포르 21일까지)
	•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인 18명 미에현 방일(17~20일까지)
17	•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 회의
18	• 한일경제협회 총회((주)삼양홀딩스 김윤희장을 12대 회장으로 선임)
19	• 2월 월례경제보고(내각부)
20	• 경제재정자문회의(총리실)
	• 1월 무역통계(재무성)
22	• TPP각료회의(싱가포르 25일까지)
23~26	• 제3국 협력, 미야마 프로젝트 조사단 파견(한일기업 50명, 양곤)
28	• 일본소비자물가지수(총무성)